

『근대초기 ‘여권女權’의 유입과 유교의 재구성*』

이숙인**

1. 들어가며
2. 개화의 창에 비친 서구 여성들
3. 여성 문제의 인식과 전통 비판의 논리
4. ‘여권女權’의 유교적 재구성
5. 맺음말

요 약 문

이 글은 근대초기 여성 개념의 변화를 ‘전통 여성’의 변형과 재구성의 측면에서 조명하였다. 한국사회 여성의 근대화는 외부 세력 혹은 외부 지식에 의한 일방적인 계몽으로 설명되곤 한다. 즉 ‘서구 여성’ 개념이 ‘전통 여성’ 개념을 배제시키고 주변화함으로써 여성 근대화가 이루어졌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1-330-B00010).

** 李淑仁,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다는 것이다. 여기서 외부의 지식이 유입되면서 일어난 내부의 변화나 외부 지식과의 소통을 통한 자기 재구성의 과정이 배제되었다. 그런데 ‘서구 여성’ 개념에 의해 변형되고 재배치된 ‘전통 여성’ 개념은 복합적인 ‘근대 여성’ 개념을 생성시키는 동력이었다.

개항기·개화기·근대계몽기 등으로 불리는 근대초기의 ‘전통 여성’은 ‘서구 여성’과의 비교를 통해 비판되고 부정되는 경향이였다. 개화의 창에 비친 서구 여성의 이미지는 사실은 조선이 ‘보고 싶은’ 것이었고 ‘되고 싶은’ 것이었다. 개화파 인사들의 주도로 이루어진 ‘서구 여성 알리기’는 ‘문명’의 서구와 결점투성이 ‘미개한’ 조선을 확인시키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이와 함께 유입된 여권의식은 조선의 지적 문화적 기반 위에서 재구성이 일어난다. 즉 남녀의 권리가 동등하다는 진리를 유교전통의 음양이론을 통해 이해하고, 여성 권리를 자립이나 독립보다는 상호의존이나 협력을 통해 인식하는 ‘내외논(內外論)적’ 재구성이다.

주제어

: 근대초기, 전통, 유교, 여권(女權)

1. 들어가며

근대초기 서구문물의 유입은 ‘전통 여성’을 새로운 인식의 장으로 이동시켰다. 특히 개화지식인들은 인습에 젖은 ‘전통 여성’을 비판하면서 조선이 나아가야 할 ‘성별’ 문명화를 제시하였다. 이에 여성을 둘러싼 전통 유교적인 사유 및 담론은 동시대 서구에서 태동한 여권의식으로 재단되어 폐기될 운명이었다. 하지만 근대초기의 여성공간은 일방적이고 단선적인 질주를 순수히 허락할 만큼 단조롭지는 않았다.

이 글은 ‘전통 여성’ 개념이 ‘서구 여성’ 개념과 만나고 협상하면서 ‘근대 여성’ 개념이 구성되어 간 근대 초기의 지적 공간에 주목하였다. 한국사회 여성의 근대화는 외부 세력 혹은 외부 지식에 의한 일방적인 계몽으로 설명되곤 했다.

즉 '서구 여성' 개념이 '전통 여성' 개념을 배제시키고 주변화함으로써 여성 근대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으로는 개항기·개화기·근대계몽기 등으로 불리는 근대초기의 역동적인 담론의 공간을 충분히 살려낼 수가 없다. 이에 외부의 지식이 유입되면서 일어난 내부의 변화나 외부 지식과의 소통을 통한 자기 재구성의 과정이 규명될 필요가 있다. 근대초기 여성 담론의 장은 '서구 여성' 개념이 '전통 여성' 개념을 주변화하지만 한편에는 변형되고 재배치된 '전통 여성' 개념이 개입하여 복합적인 '근대 여성' 개념을 생성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먼저 근대초기 한국사회가 서구를 이해하는 방식을 '여성 개념'을 통해 조명하였다. 개항 이후 등장하기 시작한 신문들은 '논설'이나 '각국사정', '잡보' 등의 난을 통해 서구 여성의 사회적 지위 및 생활 등을 소개하였다. 이것은 개화정책의 일환으로 외국 사정에 밝은 개화 지식인들이 주로 담당했다. 여기서 그려진 서구 여성의 이미지는 어땠으며, 여성 문제에 대한 근대적 인식은 어떻게 전개되는가. 그 과정에서 전통 유교는 어떤 위상을 가지는가를 보고자 한다. 이에 대해서는 문명화 담론과 공리주의, 그리고 남녀동등론이라는 세 범주를 통해 규명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서구의 여권 개념이 유교적 여성 개념에 의해 재구성되고 재배치되는 과정과 방법에 주목하여 음양남녀론과 내외론의 '여권적 女權的' 의미를 찾고자 한다.

서구적 여성 개념과 전통적 여성 개념은 모두 그 안에 상이한 의미를 가진 다양한 스펙트럼을 지니고 있다. 전통적인 여성 개념은 경직되고 고착화된 개념이라기보다는 복잡하고 유동적이며 부분적인 변형을 통해 근대적인 한국의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변용되어 온 것이다. 이에 근대 초기의 역사 공간이 필요로 하는 지적 원천들이 유교를 통해 어떻게 재구성되는가를 규명하고자 한다.

2. 개화의 창에 비친 서구 여성들

서구 여성들의 소식이 조선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1880년대 들어서이다. 같은 시기 서구에서는 ‘여권女權’을 핵심으로 한 여성해방 운동 및 이론이 이미 유통되고 있었다. 18세기 말 울스톤크래프트(Mary Wollstonecraft, 1759~1797)는 『여성 권리의 옹호』(1792)¹⁾를 통해 여성에 대한 최초의 ‘공식적인’ 문제 제기를 하였다. 그로부터 80여 년이 지난 19세기 후반에,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 1806~1873)은 『여성의 예속』(1869)²⁾을 통해 당시 여성이 처한, 또는 오랜 역사를 통해 전개되어 온 여성의 존재론적 인식론적 성격을 밝혔다. 그리고 1870년대와 1880년대의 영국에서는 여성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조건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면서 여성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었다.

1876년 조선은 공식적인 개항을 맞이하였고, 이와 함께 서양의 각종 소식들이 유입되기 시작했다. 서구 영국에서 조성된 여권의식과 여성운동의 소식들도 개항지 조선으로 유입되었다. 물론 그것은 서구의 ‘거기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전달자에 의해 이해되고 해석된 것이었다. 조선 인민의 ‘문명화’를 사명으로 한 선교사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상인들을 통해, 강한 정치적 입장을 가진 개화파 지식인을 통해, 그 경로는 다양했다. 여기서 서양 여성들의 소식을 전하는 주체나 매체 및 경로의 다름에 따라 서양 여성들의 이야기나 이미지가 달라질 수 있다. 무엇보다 서양 여성에게서 무엇을 보는가는 한국 여성 근대화의 성격을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개항을 선포한 조선 정부는 개화정책의 일환으로 대중 매체를 통해 서양의 역사와 지리, 근대 물문을 소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883년에 창간한 순한문의 『한성순보漢城旬報』는 처음으로 서구 여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실어나르기 시

1) 메리 울스톤크래프트(손영미 옮김), 『여권의 옹호』, 한길사, 2008.

2) 존 스튜어트 밀(김예숙 옮김), 『여성의 예속』, 이화여대출판부, 1986.

작했다. 여왕의 존재라든가 여장군의 활약 등은 당시 독자들에게는 대단한 자극이 될 만한 것들이었다. 순한문이어서 여성독자들이 직접 접근하기는 어려웠을 것이지만, 신문을 본 남성지식인들에 의해 이 '자극적인' 이야기들이 대중 속으로 유입되었을 것이다. 서양의 여성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당시 분위기를 보면 남녀를 불문하고 매우 흥미로운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주제였다.

『한성순보』 1884년 4월 6일자는 영국과 프랑스의 백년 전쟁에서 영웅적 활약을 보인 15세기의 여성 잔다르크(1412~1431)를 소개하는데 긴 지면을 할애했다. 프랑스가 영국의 군대에 밀려 있을 때 “이름을 여안달(如安達(잔다르크))이라고 하는 한 여자가 민간 중에서 일어나 스스로 신명(神命)을 받았다고 자칭하고는 의병을 징집하여 왕을 포위 속에서 구원하여 즉위의 예(禮)를 거행하였다.”³⁾ 고 하였다. 즉 잔다르크가 군대를 일으켜 영국을 격파하고 프랑스 영토를 되찾고 샤를 7세(Charles VII, 1403~1461)를 즉위시킨 역사적 사실을 소개한 것이다. 여자로서 군대를 일으켜 나라를 구하고 왕을 즉위시켰다는 이야기를 접한 조선의 여성과 남성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신문은 또 서양 각국의 소학교 모습을 전해주었다. 서양 각국에서는 중앙과 지방 할 것 없이 모두 학교를 설치하여 교육을 하는데, “온 나라 남녀를 막론하고 5세부터 14세까지인 아들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입학하여 책을 읽어 글자를 모르는 자가 없다.”⁴⁾ 고 하였다. 또 1884년 9월 10일자 신문의 「각국근사(各國近事)」란에는 구주의 각 나라들은 여자들도 남자들과 같이 '과거(科擧)'에 응시할 수 있다고 하였다. 물론 그 곳도 과거(過去)에는 여자들의 과거 응시가 불가능했으나 근래 독일·영국·스위스·러시아 각국이 여성 과거(考試)를 허용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였다.⁵⁾ 이 기사를 본 독자들이나 신문의 내용을 전해들은 사람

3) 「프랑스에 對한 誌略續稿」, 『漢城旬報』 1884년 4월 6일.

4) 「泰西各國小學校」, 『漢城旬報』 1884년 8월 31일.

5) 「各國近事」, 『漢城旬報』 1884년 9월 10일.

들은 여성들도 교육의 기회와 직업을 얻을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한성순보』을 계승한 『한성주보』⁶⁾는 아프리카 남동쪽에 있는 섬나라 마다가스카르의 여왕이 보인 탁월한 통치력을 소개하였다. 즉 신문은 프랑스와의 조약을 체결함에 있어 ‘백성의 주인[民主]’으로서 그녀가 보인 능력에 감탄을 면치 못하였다. “여왕은 한낱 여자로서 일을 처리함이 주도면밀하여 외국의 침해를 받지 않았으니 도왕島王으로 추존推尊되기에 부끄럽지 않다. 저 민주民主는 한 개의 대장부大丈夫로서 음모를 꾀려 하다가 도리어 당했으니 얼굴이 붉어지지 않겠는가.”⁷⁾ 여자도 왕이 될 수 있다는 상상, 더구나 지식과 논리가 뛰어나 ‘상대’ 남성을 제압했다는 기사는 당시의 남성 및 여성들에게 그야말로 별세계의 이야기처럼 들렸을 것이다. 개화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러한 이야기들은 작가들의 상상력을 자극하여 조선의 역사 속에서 여성 ‘영웅’들을 찾는 작업으로 이어진다.⁸⁾

1899년 7월 『독립신문』은 서양에서 행해지는 교육과 혼인 생활을 소개하였다. 신문에 의하면 서양의 남녀는 교육의 권리와 직업의 권리를 동등하게 가지고, 상대를 충분히 안 후에 결혼을 결정하며, 결혼 후에는 상호 신뢰와 상호 책임으로 가정을 꾸려간다. 여기서 신문은 ‘각기 자기 마음’으로 배필을 구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서양에 기명훈 나라 사람들은 남녀 간에 어렸을 때부터 혼 학교에 다니며 공부
해야 년기가 二三十이 되도록 피츠에 상종 호기를 여러 희를 흡인 셔로 학문과

6) 갑신정변으로 그 발행이 중단된 『한성순보』(1883.10.31~1884.12.4)을 이어 1886년 1월에 『한성주보』(1886.1.25~1888.7)가 창간되었다. 정부가 발행한 순보와 주보는 제호가 다르지만 계승관계에 있는 신문이다.

7) 「外洋新簡」, 『漢城周報』 1886년 9월 20일.

8) 장지연·박문호 등의 ‘여성열전’에는 용기와 기절, 통치력 등을 갖춘 여성들이 등장한다.

지덕이며 모양과 심지의 엇더 혼것을 즈세히 안 연후에 百 년 히로 흥기를 단단히 약도 흐되 ……사람마다 니의 간에 서로 스랑 흐고 서로 공경 흐야 죽기 쓰지 조금도 두 믿음을 두지 안코 엇던 사람이던지 만약 안히된이가 남편을 비반 흐거나 남편된이가 안히를 바리논이가 잇슬 디경이면 법관이 곳 잡아 다스릴뿐아니라 그 남편는 사람마다 천디흐야 세상에서 흥세를 못 흐는 법이니 그런 고로 누구던지 부부 간에 시종이 여일 흐야 집안이 화목흐고 만스가 여의 하니 이것은 다름 아니라 당초에 부부 될 사람들이 각기 쓰기 믿음에 비필 되기를 질겨 힘으로 멩흔 힘이라⁹⁾

서양의 부부들은 '서로 사랑' '서로 공경'하기를 죽을 때까지 계속한다든가 '시종여일^{始終如一}—하여 집안이 화목하고 만사가 여의하다'고 한 것은 개별적 사례를 일반화한 것이 아닌가 한다. 한편 '아내가 남편을 배반하거나 남편이 아내를 버릴 경우 법관이 잡아 다스린다'는 정보는 '부부의 사랑'에 법이 강력하게 개입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서양부부의 '환상'을 돌려놓는데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한 것 같다. 뒤에서 다를 같은 신문의 조선여성 묘사와는 상당히 대조적이다. 1896년 4월 7일에 창간된 최초의 민간 신문 『독립신문』은 순국문으로 되어 있어 대중과의 소통에 큰 역할을 하였다. 서재필과 윤치호를 비롯한 주요 필진들은 급진적 성향을 가진 개화파로 그들은 『독립신문』을 통해 서구사회에 대한 대중의 상상력을 장악해나가기 시작했다.

한편 유길준은 『서유견문』을 통해 서구 여성들의 모습을 소개하는데, 1889년에 집필되어 1895년에 간행되었다. 유길준은 “사람이 천지간에 태어나면서 이미 남녀라는 구별이 있었으니 이 둘 사이에 분별하는 예절을 마련치 않을 수는 없다.”고 하고 서양에서 여자를 대접하는 예절을 소개하였다. 이에 의하면 서양에서는 어떠한 연회든지 여자가 참석하지 않는 자리는 없고, 여자가 오면 일어나 경의를 표하거나 자리를 사양하여 상석에 앉힌다. 벼슬하는 자가 다른 나라에 사신갈 때도 부인과 함께 가고, 장사하러 멀리 타향에 갈 때도 부인과

9) 「혼인론」, 『독립신문』 1899년 7월 20일.

동행하며 산수유람할 때도 부인과 동행하면서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며 인생의 화기를 손상하지 않는다. 여자 또한 남자 대접하기를 극진히 하고 남자가 하는 일을 다 하려고 하여 의사도 되고 변호사도 된다.¹⁰⁾ 급진개화파가 전통 유교를 철저히 부정하는 것과는 달리 유길준은 유교문화와 서구문명을 융합시키려고 하였다.¹¹⁾ 그에 의하면 “서양과 우리의 풍속이 같지 않는 것은 당연하며, 우리나라가 뛰어나다거나 다른 나라가 낫다고 하는 말은 맞지 않다. 다만 그 차이만 논할 수 있을 뿐”이다.

서구 뿐 아니라 다른 나라 여성들의 삶도 조선 여성들을 비추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독립신문』은 논설에서 세계 각국이 그 전에는 서로 왕래하지 못하다가 화륜선과 전기선이 생긴 후로 오대주의 나라들이 각각 못가는 곳이 없게 되었다고 하고, 아시아주 중앙에 위치한 서장(西藏: 티벳)의 풍속을 소개하였다. 그곳을 방문하고 온 사람에 의하면 한국이나 청국, 인도의 풍속과는 달리 그곳은 ‘일처다부제’ 사회이다. 그 사회를 대표하는 자는 여자였는데, 그녀는 각국의 풍속과 물정에 대해 서로의 지식을 나눌 정도로 박학다식했다.¹²⁾

1898년에 창간된 『황성신문』에서는 인도의 여속과 우리나라를 비교하는 글을 실었다. 신문은 “땅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부녀의 풍속은 모든 점에서 꼭 같으니 기이한 일”이라고 하고 몇 가지 공통된 장점과 단점을 열거하였다.¹³⁾ 또한 『황성신문』은 ‘만국부인회’ 개최 소식을 전했다. 1899년 6월 27일부터 1주일동안 영국런던에서 개최되는 만국부인회, 그 역사는 11년 전 미국 참

10) 유길준(허정진 옮김), 『서유견문』, 422~426쪽.

11) 유길준은 유교적 변통론에 의거 근대적 이행을 주장한 것으로 평가된다(안익순, 「1870~80년대 유길준의 ‘근대’ 인식 — 유교 및 전통 관념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참조).

12) 「논설: 세계 각국이 그전에는 도모지 상통하지 못 하더니」, 『독립신문』 1899년 9월 28일.

13) 「女俗必鑑戒印度」, 『皇城新聞』, 1900년 10월 22일. 인도 여성과 한국 여성의 공통된 장점은 남편을 잘 섬기고, 자녀를 사랑하며 가사에 전념하고 정절 의식이 높고 범죄가 적다는 것이다. 반대로 두 나라 여성의 공통된 단점으로 무지하고 작은 것에 집착하며 가식적인 정절과 심한 잔소리를 들었다.

정론자 협회의 후원으로 시작되었다는 것과 회의 목적은 세계각국의 부인협회로 하여금 성식기맥(聲息氣脈)을 상통하게 하는 일임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이번 회의의 주요 안건이 국제상 부인참정권 가부를 결정하는 것임을 소개했다.¹⁴⁾ 그리고 영국에서 부인참정권을 국회의원 선거까지 확장하자는 안건을 하원의원 속회에서 가결시켰다는 외신을 소개를 소개하였다.¹⁵⁾

한편 『한성주보』는 「해외기담」란을 통해 성(sexuality)과 관련된 파격적인 내용의 글을 실었다. 당시 신문은 단순히 뉴스를 전달하는 임무보다 문화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세력으로서 사실을 보도한다는 의미보다 대중들의 상상력을 장악하는 것에 의미를 두었던 것 같다. 따라서 ‘민거나 말거나’의 방식의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일정한 지면을 차지했다. 신문은 어떤 사람이 바다에 표류하다가 ‘도화굴(桃花窟)’이라는 곳에 닿게 되어 그곳에서 본 것을 전해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여기서 도화굴이란 무릉도원과 같은 상상의 공간인 셈이다.

(그곳은) 남녀가 겨울이나 여름이나 하체에는 옷을 입지 않고 있었다. 그래서 그곳의 풍속은 상사병이나 폐결핵이 없었다. 화생(化生)을 넓히는 것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여자들은 남자들과 모두 마음대로 즐길 수 있다. 남녀가 같이 섞여 있어도 늘 여자가 먼저 남자를 유인하였고 남자가 먼저 여자를 유인하는 일은 없었다. 그 섬의 관장(官長)은 해마다 법령을 반포할 적에 여자가 남자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을 큰 경계로 삼았다. 그리고 사람들 왕래가 빈번한 대로에 크게 효유문(曉諭文)을 발표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접(交接)의 거절을 엄금함으로써 화생(化生)을 넓히고, 남녀의 원망을 해결시키고자 하는 바이다. 음양(陰陽)의 조구(調和)는 본디 사도(斯道)의 대원(大原)이요 남녀의 정교(情交)는 또한 생산을 위한 평범한 행위이다. 하나는 베풀고 하나는 받는 것이니, 따라서 시비를 논할 것이 없다. 스스로 사랑하고 스스로 아끼는 것인데 무엇 때문에 형벌로 위협할 필요가 있겠는가. ……”¹⁶⁾

14) 「萬國夫人會」, 『皇城新聞』 1899년 5월 9일.

15) 「婦人參政權問題」, 『皇城新聞』 1910년 7월 17일.

16) 「海外奇談」, 『漢城週報』 1887년 3월 21일

자신의 성을 억압하는 자에게 법적인 제재를 가한다는 이야기는 성적 취향이나 성적 행위 등을 관리하는 제도와 이념으로 둘러싸인 조선의 독자들에게 그야말로 ‘기괴스런’ 이야기이다. 정절을 강요하는 유교문화의 사람들에게 ‘정절을 버릴 것’을 강요하는 ‘도화굴’ 사람들의 이야기는 독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상상을 가능하게 했을 것이다.

그런데 개화의 창에 비친 서구 여성은 곧 우리가 보고 싶은 서구이고 우리가 되고 싶은 여성일 가능성이 크다. 그런 점에서 서구 사회 내부에서 보는 여성의 현실과 동양에서 보는 서구 여성이 똑 같지는 않을 것이다. 동시대의 존 스튜어트 밀은 영국 여성들의 존재론적 위치를 ‘완화된 노예 상태’라고 규정한 바 있다. 여성은 자기 의지나 자기 관리에 의한 자기 지배가 아니라 복종과 타인의 지배에 순종하는 것으로 길들여져 왔다는 것이다.¹⁷⁾ 한편 『제국신문』에 과부 개가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한 여성기고자는 서구야말로 우리 여성이 원하는 모든 것이 구현된 사회로 상상하였다. 그녀는 “남녀동등권이 구현된 태서(泰西) 각국에는 집안의 청춘과부를 예를 갖추어 시집을 보내는데 처녀를 시집보내는 것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¹⁸⁾ 고 하였다. 그녀에게 서구 여성은 ‘지금 여기’를 설명하기 위해 선택된 자료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3. 여성 문제의 인식과 전통 비판

조선후기에는 사회전반에 걸친 근대지향적인 변화의 흐름 속에서 개혁을 맞이하였다. 이와 함께 천부인권설에 기초한 여권 의식이 유입되었는데, 당시의 여권 의식이란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형태로 수입된 것이기보다 외국에서 온

17) 존 스튜어트 밀(김예숙 옮김), 앞의 책, 62쪽.

18) 『帝國신문』, 1899년 10월 14일.

외교관이나 상인들 그리고 기독교 선교사들의 생활을 통해 접하게 된 것이다. 특히 한국주재 외교관들은 가족들을 대동하고 왔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 서양의 가정생활 및 서양 부부의 동등한 부부생활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전통과 연계된 여성 문제들이 '근대적' 시선의 도마 위에 올랐다. 혼인 관습이 파생한 여성 지위의 문제나 아내를 대하는 남편의 태도 등이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다. 그렇다면 여성에 대한 근대 의식은 한국 전통의 유교와 어떻게 만나고, 전통여성 비판은 어떤 지식에 근거하며 어떤 논리로 합리화되는가.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개화정책의 일환으로 제작 유포된 개항기의 신문은 당시의 분위기를 전달해 주는 중요한 통로 역할을 했다.

1) 문명화의 맥락에서 본 전통 여성

개항기에 유입된 '문명'은 유교로 대표되던 전통을 버려야 할 '구습舊習'으로 전락시켰다. 이에 의하면 세계란 문명과 비문명(야만)의 대립이며 그 지상 목표는 바로 문명이다. 그 '문명'은 남녀의 만남에서 혼인에 이르게 되는 과정과 혼인 생활 그리고 여자를 대접하는 태도 등 조선 전통의 모든 것을 비웃고 조소하였다. 특히 급진개화파 인사들이 중심이 된 『독립신문』의 필진들은 조선 사람의 혼인 관습을 '문명화'의 제일 과제로 삼았다.

조선 사람들은 당초에 아내를 얻을 때에 그 부인이 어떤 사람인 줄도 모르고, 여편네는 그 사나이가 어떤 사람인 줄도 모르면서 남의 말만 듣고 혼인하는데, 서로 약속하기를 들이 서로 사랑하고 공경하며 예쁘게 평생을 같이 살자 한다. 이러한 소중한 약속을 서로 하면서 서로 보지도 못하고 서로 성품이 어떤지 모르니 어떻게 지켜질 수 있겠는가. ... 사나이와 여편네가 평생을 같이 살며 집안을 보호하고 자식을 생육하자 하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약속을 하니 실상을 생각하면 어찌 우습지 않으리오.¹⁹⁾

이어서 신문은 '문명국' 시민들의 혼인 관행을 비교 소개하였다. 다른 나라(서

구)의 경우는 남녀가 지각이 든 후에 학교나 교회 같은 데서 만나 서로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면 2-3년 동안 지켜보면서 만남을 계속한다는 것이다. 그리고도 여전히 사랑한다면 남자가 청혼을 하고 여자는 승낙하거나 거절함으로써 자신의 뜻을 밝히게 된다. 마음이 맞을 경우 또 몇 해를 서로 지내다가 사랑이 단단한 것을 확신하게 될 때 혼인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혼인 관습의 ‘문명’과 ‘비문명’을 구분하는 기준은 ‘자유연애’와 ‘자기결정’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전통적인 혼인에서 혼인 당사자의 의사가 적극 반영되지 않았거나 무시된 점은 문제가 되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끼리” 혼인한다는 것은 유교적인 혼인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유교에서도 혼인은 “두 집안이 합하여 만복의 근원”²⁰⁾을 이루는 인생 최대의 사업이다. 다만 개인과 개인의 결합이기보다 집안과 집안의 의미가 크고, 혼인 당사자의 자기결정이 아닌 가족 공동체가 결정한다는 점이 ‘문명의 혼인’과 다르다. 다시 말해 ‘혼인을 가볍게’ 생각하거나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혼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서구의 연애결혼을 문명의 척도로 삼을 때, “서로 소원하게 지내던 사람들을 매파가 중간에서 혼인을 하도록 한 경우 끝까지 해로하는 자가 드물었다.”²¹⁾는 식의 담론이 생산된다.

조혼^{早婚}의 풍습도 ‘문명화’의 구도에서 접근되었다. 주시경^{周時經}(1876~1914)은 조혼을 ‘무식하고 미개한 나라’의 풍속이라고 하였고, 성에 집착한 ‘짐승같은’ 행위로 폄하하였다. 이 역시 ‘문명개화’의 혼인 습관과 비교되었다.

지금 원 턴하를 돌아 보아도 문명훈 나라일수록 혼인하기를 혈기가 확실이 충창
하기를 기드릴 뿐이 안이라 남녀간 다 공부를 녀너이 호고 또 혼인하면 살립홀

19) 「남편과 안희란거슨 평성에 쓰고 단거슬 홉피 견디고 만스를 서로 의론 하야, 『독립신문』 1896년 6월 6일.

20) 玉泉生·吳尙俊, 「近日 婚姻에 惡習」, 『皇城新聞』 1907년 2월 26일.

21) 廉仲模, 「一進演說」, 『皇城新聞』 1906년 3월 24일.

것과 즈녀 교양홀 도리스지 미리 주선하고 경영흔 후에야 비로소 혼인을 행하며 만매흔 나라일수록 혼인이 인성에 데일 큰 일인 줄을 몰고 덕담흔 때를 기다리지 안이 하며 정중흔 주선은 한아도 업시 음욕이 싹만 날만하면 증심 7티 혼인을 행하며…….22)

윤치호 역시 조선의 조혼은 여성의 “두뇌를 속박하는 것으로 중국 여인의 전족보다 더 야만스런 풍속”²³⁾이라고 하였다. 사실 윤치호의 ‘문명개화론’은 그가 서 있는 자리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스스로 밝힌 바, 그는 유교를 통한 영혼의 만족을 얻지 못했던 유교의 주변인으로써 기독교를 통해 자강을 모색한 급진개화파로 분류된다.²⁴⁾

한편 여성에 대한 태도와 예절의 문제도 ‘문명과 반문명’을 가르는 기준이 되었다. 여자를 무시하고 천대하는 남성들의 습관과 행위는 ‘미개인’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담론화되었다.

여편네가 사나이보다 조금도 낮은 인생이 아닌데 사나이들이 천대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사나이들이 문명 개화가 못되어 이치와 인정은 생각지 않고 다만 자기의 팔심만 믿고 압제하려는 것이니 어찌 야만과 다름이 있으리오, 사람이 야만과 다른 것은 정의와 예법과 의리를 알아 행신을 하는 것이어늘…….25)

이에 의하면 ‘문명한’ 나라들은 남녀 차별이 없어 남자가 여자를 동등하게 대접하고 나아가 여자에게 편안하게 대해주는 방법들을 고안하였다. 모든 일을 아내와 남편이 함께 상의하고 공중 공간에서는 여자에게 더 좋은 조건을 양보하

22) 주시경, 「문설: 일즉이혼인흔는폐」, 『家庭雜誌』 4, 1906.

23) 尹致昊, 「大韓自強會演說」, 『황성신문』 1906년 7월 23일.

24) 장규식, 「개항기 개화지식인의 서구체험과 근대인식 — 미국유학생을 중심으로」, 『한국근현대사연구』 28, 2004.

25) 「세상에 불상흔 인심은 조선 녀편네니 우리가 오늘날 이불상흔 녀편네들을 위하야」, 『독립신문』 1896년 4월 7일.

는 것이 ‘문명국’ 남자들의 모습이다.²⁶⁾ 이에 비해 조선 남자들은 가난할 때 아내 덕으로 옷도 입고 밥도 먹고 지내다가 조금 형편이 나아지면 아내를 잊어 버리고 모르는 여자를 첩으로 얻어 그 돈으로 같이 쓴다. 그가 비록 ‘문명개화’ 한 서양 풍속을 잘 모른다 할지라도 청나라의 성현들도 ‘수신제가치국평천하’를 말하여 부부생활에 신중을 기하는데, 유독 조선 남자들만 문명과 거리가 멀다.²⁷⁾

그런데 개항기 ‘문명화’의 담론은 문화제국주의가 제3세계 혹은 비서구 남성들을 정복하기 위해 사용했던 방식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즉 조선의 남자와 조선의 여자를 적대적 관계로 놓고, 남자를 무식하고 폭력적이고 게으른 존재로 만들고, 여자는 초라하고 불쌍하고 가여운 존재로 규정하는 것이다. 폭력의 조선 남자로부터 불쌍한 조선 여자를 구출해 내는 것이야말로 문화제국주의의 기본 방정식이다.²⁸⁾ 이것은 제3세계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이어진다.

문명과 여성해방의 필연적 연관은 “녀즈는 남자를 낮코 기르는 근본이니 옛지 근본을 낮코 문명기초를 도모하리오.”²⁹⁾라는 말에서도 확인된다. ‘문명화’의 맥락에서 여자들을 구속하는 남자들의 행위는 곧 미개국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여자의 족적(足跡)은 호외(戶外)에 나서서는 안되며 여성의 직무는 침선(針繡)·취한(炊爨)·산이(産兒) 등이기 때문에 여자 교육이란 있을 수도 없고 설령 실시한다 하더라도 사회에 전혀 무익하다는 주장은 미개국의 쇠국주의 같은 것이다.”³⁰⁾

‘문명국’에서 온 선교사들의 눈에 비친 한국여성도 개화와 인사들이 묘사한

26) 『세가지우미훈일』, 『독립신문』 1899년 5월 31일.

27) 『남편과 안희관거슨 평성에 쓰고 단거슬 흠피 견디고 만스를 서로 의론 향야』, 『독립신문』 1896년 6월 16일.

28) 찬드라 탈파드 모한티(문현아 옮김), 『경계없는 페미니즘』, 도서출판 여이연, 2005.

29) 『논설』, 『태국신문』, 1901년 1월 22일.

30) 柳東作, 『西友』 2, 1907.

모습과 유사하다. 1884년 갑신정변 이후가 되면 선교사의 합법적인 방문이 가능했는데, 이들이야말로 '문명화'의 사명을 띠고 한국 땅에 온 사람들이다. 릴리어스 언더우드(1851~1921)는 “조선의 여성들은 슬픔과 절망, 힘든 노동, 질병, 애정 결핍, 무지 그리고 흔히 수줍음 때문에 그들의 눈빛은 흐릿해졌고 얼굴은 까칠까칠해졌고 상처투성이가 되었다.”³¹⁾고 하였다. 조선의 엄격한 내외법으로 여성들에 대한 선교가 제한을 받아 여선교사들이 파송되었는데, 이들이 묘사하는 조선여성은 대체로 ‘집안에 갇혀 바깥 출입이 금지되어 있고, 무지하고 무력한 남성의 희생자’이다. 더러는 ‘양반가의 여성은 서구의 문화가 감히 근접할 수 없었던 존재’라고도 하고, 조선 여성은 몇 가지 부류로 나뉜다는 관찰도 있었다. 1884년 3개월 동안을 한국에 체류하였던 로웰은 서울 거리에서 볼 수 있는 여성들은 세 부류라고 하였다. “가마를 타고 다녀서 전혀 모습을 볼 수 없는 여성, 걸어가는 옷 뭉치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 여성 그리고 생계를 위해 일하느라고 남의 눈에 노출된 여성이 그들이다.”³²⁾

당시 조선 여성의 삶은 계층이나 그 외의 조건에 따라 다양했던 것은 당연한 사실일테고, 일부 방문자들은 조선 여성들의 그런 차이를 잘 포착하였다. 그럼에도 전 조선 여성을 양반가 여성으로 획일화하여 ‘감옥 같은 집안에 갇혀 있다’거나 전 조선 여성들을 거리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하층 여성으로 획일화하여 ‘무지몽매하고 노예와 같은 삶’이라고 하는 서술의 형태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있다. 여기서 관찰자 또는 서술자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선 여성의 상황이 비참하면 할수록 선교사 자신들의 정체성을 만들고, 자신의 욕망을 구현할 수 있는 공간을 계속 확보해 갈 수 있는 조건이 되었던 셈이다.³³⁾

31) 릴리어스 호튼 언더우드(김철 옮김), 『언더우드 부인의 조선견문록』, 29쪽.

32) 퍼시벌 로웰(조경철 옮김), 『내 기억 속의 조선, 조선 사람들』, 예담, 2001: “Choson, the land of the morning calm.”, Harvard University Press, 1885.

33) 윤정란, 『19세기말 조선의 안방을 찾은 미국 여성의 욕망』, 『사림』 34, 수선사학회, 2009.

2) 공리주의적 측면에서 본 전통 여성

『여성의 예속』을 통해 여성 억압의 원인과 여성 해방의 대안을 제시한 존 스튜어트 밀은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그에 의하면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가 되어 노예 취급을 받는 것은 사회적이고 제도적인 문제이지 본성의 차이가 아니다. 그러면서 밀은 “우리의 관습과 제도를 제안된 대로 변화시킴으로써 우리는 무슨 이익을 얻을 것인가?”³⁴⁾ 라고 묻는다. 다시 말해 그의 여성의 해방은 우리 인류에게 무슨 이익을 줄 것인가 라고 하는 공리주의에 근거한 물음을 수반한다. 이같은 맥락에서 여성을 둘러싼 조선의 관행은 민족과 국가에 해를 끼친다는 점에서 부각되었다. 이해利害의 계산은 신체 건강의 문제, 지적·정신적인 문제, 물질적·경제적인 문제 등 다방면에서 따져졌다.

특히 조혼은 우생학적인 측면에서 문제시되어 국가와 민족, 인류에 엄청난 해를 입힌다는 쪽으로 담론화되었다. “국가에 제일 해로운 일은 골격이 자라기 전에 아이들이 혼인을 하여 자식들을 낳으니 그 자식들이 튼튼치가 못하고 사람의 씨가 차차 줄어가고 있는지라.”³⁵⁾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인종이 강건하고 신체 골격이 충실한 것은 혼인 시기에 달려 있는데, 사나이는 21세 이상이고 여인은 19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³⁶⁾ 또 조혼은 나라를 망하게 하고 민족을 멸하게 하는 장본인이며, 그로 인해 인구가 감소하고 인재의 결핍과 교육이 추락하고 산업의 쇠잔해지며 지기志氣가 해진다고 하였다.³⁷⁾

1906년 대한자강회 연설에 나선 윤치호尹致昊(1865~1945)는 조혼을 ‘음양조통陰陽早通’으로 자식을 일찍 얻어 과반수 요절하고, 어린 나이임에도 결혼으로 인해 어른으로 대접받게 되면서 술 담배가 허용되어 건강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34) 존 스튜어트 밀(김예숙 옮김), 『여성의 예속』, 15쪽.

35) 「남편과 안희관거슨 평성에 쓰고 단거슬 홉피 견디고 만스를 서로 의론 할야」, 『독립신문』 1896년 6월 6일.

36) 「남녀 간에 혼인이라 혼는것은 평성에 큰 관계가 있는 일」, 『독립신문』 1898년 2월 12일.

37) 「조혼의 폐해를 통론함」, 『皇城新聞』 1909년 9월 3~4일.

점을 들었다. 무엇보다 여이는 시집살이에 골몰함으로써 학문을 할 겨를이 없어 지식의 발달에 큰 해가 되고 있다고 하였다.³⁸⁾ 이렇게 조혼은 조선사회에서 발생한 모든 문제의 근원으로 지목되었다. 어린 아이의 질병과 요절이 많은 것은 조혼 때문이고, 더구나 조혼은 음풍淫風을 조장한다는 것이다.³⁹⁾ 조혼의 병폐를 설명하는 지식도 발달했다.

조혼으로 낳은 아이는 요절하는 경우가 많다. 여자가 장성하고 남자가 어리서 낳은 아이는 양혈이 부족하고 남자가 장성하고 여자가 어린 상태에서 낳은 아이는 음혈이 부족하여 음양이 고르지 못한 사람이 되니 어찌 충실할 수 있는가.⁴⁰⁾

주시경과 여선교사 메리 스크랜튼(Mary Scranton, 1832~1909)도 조혼이 파생한 가장 큰 문제로 우생학적 이유를 꼽았다. 주시경은 “성장하기 전에 열매를 맺는 식이어서 인민의 위기를 줄어든게 하고, 부실한 자식을 낳게 되어 인종이 줄어들다.”⁴¹⁾고 하였고, 스크랜튼은 조혼을 “가정불화의 원인이자 음란 풍속을 조성하게 되어 다른 민족의 무시와 하느님의 미움으로 민족 멸망이라는 사태에 이른다.”⁴²⁾고 하였다. 이러한 조혼 담론은 당시 유행한 인종주의와 결합하면서 이념적인 양상을 띠었다. 조혼 폐지는 ‘세계 인종 중에서 제일 영민하고 부지런하고 담대한 백인종을 모범으로 해야 종자가 멸종되는 위기를 면할 수 있다’⁴³⁾는 주장으로 향한다.

조혼을 우생학의 문제로 특화시키는 담론은 과거의 유교가 ‘동성불혼(同姓不婚)’

38) 尹致昊, 「大韓自強會演說」, 『황성신문』 1906년 7월 23일.

39) 『皇城新聞』 1906년 3월 24일.

40) 玉泉生·吳尙俊, 「近日 婚姻에 惡習」, 『皇城新聞』 1907년 2월 26일.

41) 주시경, 앞의 글.

42) 스크랜튼, 「조혼의 폐단」, 『그리스도 회보』 1911년 3월 30일.

43) 「논설」, 『독립신문』 1897년 6월 24일.

을 우생학의 문제로 연결시키던 방식과 닮아 있다. 동성불혼의 정당성은 일차적으로 근친혼이 가져올 우생학상의 문제로 부각되었다. 즉 “남녀가 동성(同姓)일 경우 자식 생산이 위축된다.”⁴⁴⁾는 것이다. 그런데 근친이란 부계와 모계를 포괄하는 것이고 동성은 부계만을 말하는 것이라 ‘동성불혼’은 반쪽의 ‘근친혼’을 배제하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동성불혼’은 혈통의 우수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학적 담론이기보다 동성인 부계 친속의 연대와 이성혼(異姓婚)을 통한 사회적 네트워크의 확장을 기획하는 정치적 담론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조혼을 철저하게 국가라는 척도에 의해 문제적인 것으로 규정한 것이나 부모들의 ‘사적 재미’를 위해 저지른 일로 회화화하고 있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있다. 그리고 ‘자식은 부모만을 위하여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허다한 의무와 허다한 사업으로 그 부모에 부탁하여 가르쳐 세상에 쓰이게 함이라.”⁴⁵⁾고 한 것은 자식을 부모의 품에서 ‘공공’의 일원으로 옮겨다 놓은 것이다. 여자를 교육시키는 것도 “개명(開明)한 다수의 타국 인민을 대적할 능력을 기르기 위한 우리 인종이 생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⁴⁶⁾으로서 뚜렷한 공리주의적 목표를 갖는 것이다.

3) 남녀동등론의 입장에서 본 전통 여성

‘남녀동등론’이라는 새로운 지식으로 개화파 인사들은 조선 여성들의 억압적 상황을 묘사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조선여성’은 ‘천하고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들’이다. 『독립신문』은 조선 여성들을 천대하고 억압하는 조선의 ‘사나희’들과 맞서 싸울 것을 약속한다.

44) 『春秋左氏傳』僖公23년. “男女同姓, 其生不蕃.”

45) 『가정잡지』 1년 3호, 1906년 8월.

46) 『녀즈지남』 제1호.

우리는 천 하고 가난 하고 무식한 사람들의 친구라 조선 녀인네들이 이러케 사나회들의게 천디 밧는거슬 분히녀여 언제 쓰지라도 녀인네들을 위 해야 사나회들과 싸움을 홀터이니 조선 유지각한 녀인네들은 당당한 권리를 췌기지 말고 아모썩록 학문을 비화 사나회들과 동등이 되며 사나회들이 못 하는 스업을 홀 도리를 하여보기를 바라노라.⁴⁷⁾

신문에 의하면 조선의 여성들은 압제적인 풍속 때문에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원통한 일이 있어도 참는 방식으로 임한다.⁴⁸⁾ 그런데 남녀는 모두 천지 사이 만물 중에 제일 귀한 자들로 각각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태어난다. 남녀 사이에는 서로 다른 차이는 있으나 각기 자유권이 있어 자신과 관련된 모든 일은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정상인데, 조선의 여성은 오로지 남자의 명령에 순종할 뿐이다.

심 하다 대한 사람의 녀인을 학터 하는 악습이여 죄인을 옥안에 가둔것 꺾치 부녀를 제 집안에 가두어 두고 대문 밧기를 못 나가게 홀뿐 아니라 말 소리도 크게 못 하게 하며 그 안희가 집안 일이라도 조곰 간섭을 한다던지 그 남편의 횡스가 불미 한것을 만약 바른 말노 닐씨오면 그 남편이 제잡담 하고 대춰 하는 말이 암둑이 시벽에 울면 나라이 불편한 법이요 녀인의 소리가 대문 밧기 나가면 집안이 망 하는 법이라 해야⁴⁹⁾

여기에서 『독립신문』을 만든 사람들의 정치적 성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발행자 서재필은 갑신정변의 실패 후 미국 귀화인이 되었고, 본국의 가족이 모두 몰살되는 상황을 통해 조선정부와는 적대적인 관계에 처하게 되었다. 그의

47) 「논설: 조선에 학교에 다니는 사람들이 전국 인구 슈효와 비고 하여 보면」, 『독립신문』 1896년 9월 5일.

48) 「남편과 안희란거슨 평상에 쓰고 단거슬 홀피 견디고 만스를 서로 의론 하여」, 『독립신문』 1896년 6월 6일.

49) 「세가지우미홀일」, 『독립신문』 1899년 5월 31일.

서구 체험은 이전 모든 관계와의 단절 위에서 형성되었고, 그는 미국 시민사회를 조선 문명개화의 도달점으로 인식하였다.⁵⁰⁾ 따라서 서재필과 윤치호 등이 주도한 『독립신문』에서 펼쳐진 ‘전통 여성’ 담론은 감안하여 읽어야 할 부분이 있다. 그들을 순수하게 여성 권리를 위해 동분서주한 선각자이자 ‘친절한 아저씨’의 이미지로 서술하는 방식⁵¹⁾은 재론의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한편 조선 여성의 해방과 계몽에 의미를 둔 여선교사들의 ‘조선여성’은 한편의 소설을 연상케 한다. “집이라는 감옥에 가두어놓고 그릇 한 죽 해야될 수 있는 지능마저도 허락받지 못했으며 자신이 낳은 아이에게 미소지어보이는 정도의 감정표시조차도 부덕한 것으로 비난받았다. 움직이는 목석을 이상적 여인으로 생각했던 것이다.”⁵²⁾ “(조선에서) 어머니는 처음부터 가정에서 아무런 존재도 아니다. 그는 남편의 신분에서 따라 일종의 가구나 짐을 끄는 가축 또는 가정의 장식품으로 여겨지며 이들은 어머니를 더 별 볼일 없는 존재로 취급한다.”⁵³⁾ “여성은 남성의 반려가 아니라 노예에 불과하고 쾌락 또는 노동의 연장에 불과하다.”⁵⁴⁾

“조선에서는 여자를 애초에 사람으로 치지 않았다.”⁵⁵⁾ 라든지, 거의 노예이지만 “노예와 달리 해진 옷 거친 음식에도 불평하지 않고 복역하는 며느리의 존재는 유용한 노동력을 확보하는 데 최상의 방법이었다.”⁵⁶⁾ 는 식의 담론이 주류를 이루었다. 과부 개가 금지에 대한 비판에서 “안희가 죽으면 후취 하는거슨 더희들이 올흔 법으로 작정호였고 서방이 죽으면 기가호여 가는거슨 천히 녀이니

50) 장규식, 「개항기 개화지식인의 서구체험과 근대인식 — 미국유학생을 중심으로, 『한국근현대사연구』 28, 2004.

51) 김영희, 「개화기 신문의 여성문제 인식의 경향」, 239~244쪽.

52) 주선애, 『장로교 여성사』, 32쪽 재인용.

53) A.H.새비지 랜도어(신복룡·장우영 옮김),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 83~84쪽.

54) 퍼시벌 로웰(조경철 옮김), 앞의 책, 120쪽.

55) 「논설」, 『독립신문』 1896년 9월 5일.

56) 윤치호, 「조혼의利害」, 『皇城新聞』, 1906년 7월 23일.

그거슨 무슴의린지 몰을너라.”⁵⁷⁾ 라고 하였다. 이와 함께 남녀 불평등한 관행을 수정하려는 법제도적인 모색이 시도되었다. 민치헌씨의 소청으로 과부 개가가 합법화되었고, 과부의 나이에 따라 재혼의 예가 규정되었다. “사대부가의 과부도 적당한 문벌을 택하여 개가하게 하되, 15세에서 20세까지는 초취의 예와 같이 하고 21세부터 30세까지는 재취의 예와 같이하고 30세에서 40세까지는 문벌을 논하지 않는다.”⁵⁸⁾

‘여성 권리’ 확보를 위한 담론 생산에 큰 역할을 한 개화파 지식인들에 대해서는 일정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들 역시 근대초기의 시대적 한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었던 것 같다. 첩의 문제에서 그들은 첩을 얻는 남자나 첩이 되는 여자를 세계에서 제일 천한 사람으로 대접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우리 생각에는 계집이 되어 님의 첩이 된다면 님의 사나회를 음형에 범 하게 하는 인성들은 다만 이세상에만 천 흠뿐 아니라 후성에 그사나회와 궂치 디옥에 갈터이요.”⁵⁹⁾ 라고 하였다. 첩의 존재를 가능하게 물질 제도적 조건이나 역사문화적인 배경에 대한 고려없이 여성 개인의 선택 문제로 보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있다.

4. ‘여권(女權)’의 유교적 재구성

개항 이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유입된 여권 의식은 조선의 지적 문화적 기반 위에서 재구성이 일어난다. 여기에서는 진리 인식의 근거를 유교적 경전에서

57) 『논설: 세상에 불상한 인성은 조선 너편네니 우리가 오늘날 이불상한 너편네들을 위하야, 『독립신문』 1896년 4월 21일.

58) 『疏請改嫁』, 『皇城新聞』 1900년 12월 3일.

59) 『독립신문』 1896년 6월 16일.

찾거나 진리를 주장하는 방법에서 유교적 언어를 사용하며,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하는 지적 권위를 유교지식인의 사유를 빌려오는 방식에 주목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남녀의 권리가 동등하다는 ‘진리’를 음양이론을 통해 이해하고, 여권을 자립이나 독립보다는 상호 의존이나 협력을 통해 인식하는 ‘내외론內外論’적 방식이다.

1) 음양남녀론

여자와 남자는 평등한 존재이고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관철되기 위해서는 강력한 권위를 가진 지식의 지원이 필요하다. 『독립신문』은 기독교적 창조설과 유교의 생성론을 통해 자기 주장을 확보하려고 했다.

대저 하나님께서 텐디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일월을 만드샤 태양은 낮이 되게 하시고 태음은 밤이 되게 하셨으니 음양의 권리가 일반이 되어 독양이 능히 만물을 내지 못하고 독음이 능히 만물을 기르지 못하며 사롭이 그 가운데 심하니 또한 음양의 권리를 노노아 가진지라. 처음에 녀즈가 남즈로 좃차 낫스되 녀즈의게 산육하는 리치를 마련하신고로 남즈와 녀즈 아니면 존손도 전할 수 없는지라. 그런즉 음양의 권리가 갓흔 뿐 아니라 남녀의 권리가 또한 동등이요…….⁶⁰⁾

논설은 인간과 만물이 있게 된 제일 원인을 ‘하나님’으로 보지만, 만물을 만들어내는 실제적인 일은 음과 양이라는 ‘두 힘’이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의도한 것이 아닐 수 있지만, 여기서 남녀가 동등하다는 논리적 근거는 ‘하나님의 역사’에 있기보다 ‘홀로[獨]’는 불가능한 ‘음양陰陽’의 상호 역할에 있다. 일반적으로 음양의 운동은 여자와 남자를 상징하는 두 힘으로 이해되는데, 이것은 ‘한 번은 음하고 한번은 양한 것이 도’(一陰一陽之謂道)라는 음양론의 핵심

60) 「녀학교론」, 『독립신문』, 1899년 5월 26일.

을 말한 것이다. 개화지식인들도 '음양론'이 함축하는 지적 권위를 인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학자들이 주요 필진으로 참여한 『황성신문』은 음양 원리를 통해 남녀 동등한 권리를 도출해낸다.

사람은 태어나기로 남자 아니면 여자이니, 남자는 양의 기운을 품수하여 강하고 단단한 덕을 가지고 여자는 음의 기운을 품수하여 부드럽고 약한 도리를 가지게 되었다. 음양이 서로 교합하여 천지의 도를 이루듯이 남녀가 서로 소통하여 천지를 화생하는 것은 만고에 바뀔 수 없는 이치라. 이로서 볼 때 남녀가 평등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겠다.⁶¹⁾

남녀동등론의 근거로 '음양'이 자주 거론된 것은 인간과 만물을 설명하기에 익숙한 개념이기 때문일 것이다. “하늘과 싸이 처음으로 난홀째에 음양의 두 기운이 잇서 만물을 환싱 하니.....처음에 하늘과 싸이 음양 기운으로 차등업시 너신 남녀들”⁶²⁾에서 보인 바, 남녀동등의 시대적 요청으로 음양론이 선택된 것이다. 하지만 남녀차별을 논증해야 할 상황에서도 음양론으로 '양존음비(陽尊陰卑)'의 근거로 활용되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기존의 지식을 어떤 전망으로 재구성하는가이다.

『한성순보』는 『만국공보』에 이미 실렸던 「야소교를 논함」이라는 중국인의 글을 소개했다. 예수교의 '하나님 아버지'(天父)라는 것에 대해 그는 하늘에 이 목구비를 갖춘 사람이 있다는 설정도 비합리적이지만, 나를 있게 한 존재라는 뜻에서 나온 것이라면 '어머니'(母)는 어떻게 하느냐고 하였다. 모태로부터 나의 존재가 나오는 것인데 부딪만 섬기고 모를 버리는 것은 존재에 대한 참된 이해가 아니라고 하였다.⁶³⁾ 이 역시 음양남녀론의 연장선상에 있는 사유이다. 음양

61) 「논설: 女子亦宜教育事爲」, 『황성신문』 1900년 4월 9일.

62) 『제국신문』, 1899년 10월 14일.

63) 「耶穌教를 論함」, 『한성순보』 1884년 6월 14일.

론적 남녀관은 남녀의 방법적인 분리를 통해 궁극적인 조화를 이루어내는 내외론(內外論)으로 이어진다.

2) 내외론의 여권적(女權的) 재구성

대부분의 개화사상가와 외국 선교사들은 조선의 '내외법(內外法)'을 여성의 열악한 상황을 만든 원인으로 지목하였다. '옥에 갇힌 듯 집안에 가두어 놓고', '밖으로 나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등의 표현은 그들이 이해한 내외법의 현실태였다. 하지만 유교 경전의 내외 개념은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면서 다양한 변주를 보여왔다. 근대초기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주나라 태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안으로는 원망하는 계집이 없었고 밖으로는 흠아비가 없었다.”⁶⁴⁾는 『맹자(孟子)』의 말이 과부 개가를 주장하는 논리로 사용되었고, 『춘추좌전』의 '기결(冀缺) 고사가 부부 동등론의 자료로 활용되었다. 이런 방식이다. “기결 부부는 서로 공경하기를 손님과 같이 하였다 하니 동양 사람 중에도 학문이 있는 사람은 그 아내를 공경하였는데, 지금 대한 사람들이 여인을 천대하는 것은 다 학문이 없는 까닭이로다.”⁶⁵⁾ 개항기의 요청을 반영하면서 유교적 여성을 재구성한 노상직(盧相稷)(1855~1931)의 『여사수지(女士須知)』(1889)에서도 기결의 부부생활이 다루어졌다.⁶⁶⁾

여권의 내외론적 재구성, 그 하나의 모델을 소개할까 한다. 1898년에는 '여성 권리' 확보를 위한 여성들의 구체적 행동이 개시되었다. 서울의 북촌 양반 부인들 및 중인 여성들이 결성한 '찬양회(贊襄會)'는 여성 권익을 목적으로 한 단체이다. 이들은 1898년 9월 1일 「여권통문(女權通文)」을 통해 여중군자를 길러낼 여학

64) 「기고」, 『제국신문』 1899년 10월 14일; 『孟子』「梁惠王下」의 “內無怨女 外無曠夫”

65) 『독립신문』 1899년 5월 30일. 훌륭한 부부생활이 세상에 알려져 晉(文公)의 卿으로 천거된 기결(冀缺)은 『春秋左氏傳』 僖公 33년에 나온다.

66) 노상직, 『女士須知』, 1889.

교를 세우는데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여성 3백여 인이 참여한 이 선언문은 『황성신문』(1898년 9월 8일) 논설에 「오백년유五百年有」라는 제목으로 실렸고, 『독립신문』(1898년 9월 9일)에는 「녀학교론」이라는 제목으로 실렸다. 두 신문에 실린 원문은 약간 다르지만 내용은 거의 같다. 먼저 『황성신문』은 ‘여권 통문’을 지상에 소개하는 뜻을 말하였다. 그것은 “북촌의 어떤 여중군자 몇 분이 개명에 뜻이 있어 여학교를 세워달라는 통문이 있어 하도 놀랍고 신기하여 우리의 논설을 없애고 게재하노라.”⁶⁷⁾로 시작한다. 여기서 이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인식, 그 권위를 확보하는 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선언문은 “만물이 궁극에 도달하면 반드시 변하고 법이 궁극에 도달하면 반드시 고치는 것은 고금의 당연한 이치이다.”로 시작된다. 이것은 변화의 원리를 담아낸 『주역』의 언어를 차용한 것이다.⁶⁸⁾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나이’와 동등한 권리를 갖는 것이고 그 방법은 여학교를 설립하는 것이다.

이목구비와 사시오관 육체가 남녀가 다름이 있는가? 어찌하여 병신 모양으로 사나이가 별어주는 것만 앉아서 먹고 평생을 규방에 처박혀 남의 통제만 받으리오, 이왕에 우리보다 먼저 문명개화한 나라들을 보면 남녀가 동등권이 있는 지라 어려서부터 각각 학교에 다니며 각종 학문을 다 배워 이목을 넓혀 장성한 후에 사나이의 부부지의를 맺어 평생을 살더라도 그 사나이에게 조금도 압제를 받지 않고 후대를 받음은 다름아니라 그 학문과 지식이 사나이와 못지 않은 고로 권리로 같으니 어찌 아름답지 않겠는가. …… 이제는 옛 풍습을 완전히 없애고 개명 진보하여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와 같이 여학교를 설립하고 각각 여아들을 보내어 각자의 재주를 배워 후에 여중군자들이 되도록 여학교를 창설하니 뜻있는 우리 동포 형제 여러 여중영웅 호걸님네들은 각각 마음을 내시어 귀한 여아들을 우리 여학교에 들여보내시려거든 서명하시기를 바랍니다. 9월 1일 여학교 통문발기인.⁶⁹⁾

67) 「논설: 五百年有」, 『황성신문』 1989년 9월 8일.

68) “窮則變 變則通 通則久.”(『周易』「繫辭下」)

69) 「五百年有」, 『황성신문』 1989년 9월 8일.

여권女權을 쟁취하기 위한 양반 부인들의 주장과 논리는 개화사상가들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녀들이 만든 단체의 이름 ‘찬양회贊養會’에는 그들의 정체성이 담겨있을 것이다. ‘찬양’은 보조하다, 협조하다, 보필하다, 돕다는 뜻으로 어원은 유교경전 『서경書經』 「고요모阜陶謨」⁷⁰⁾에 나온다. 순舜의 신하 고요阜陶가 “제가 아는 것은 없으나 도우며 도와 일을 이루도록 할 생각뿐입니다.”라고 한 말에서 기원한다. 다시 말해 ‘찬양회’라는 명칭이 시사하는 바, 복춘의 그녀들은 ‘내쳐’의 영역에서 구현되는 역할과 가치로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삼고 있는 것이다.

찬양회 회원이 여학교 설치 통문을 전해들은 한 일본인은 찬양회의 활동을 극찬하면서 그녀들의 행위가 자기 가족을 대상으로 한 태사太姒나 맹모孟母보다 훨씬 훌륭하다는 것이다.⁷¹⁾ 그는 돌봄과 보살핌으로 적국에게까지 그 혜택이 미치는 인류 사랑의 정신을 찬양회에서 본다고 하였다. 이 논법을 가만히 살펴보면 남편과 자식 등 남성 가족에 대한 내조로 이름을 남긴 전통 ‘성모聖母’를 대신한 자리에 국가와 인류를 위한 ‘내조’의 개념이 자리한 것이다. 즉 형태나 내용 등에 약간의 변화가 왔을 뿐 여성은 내조라는 도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1904년 12월 공진회의 연설 현장에서 회장 이준의 아내는 다음과 같은 대중 연설을 하게 된다.

제 지아버는 나라를 사랑하는 혈기와 의협심을 지니고 있었으나 그 목적을 미처 달성하지 못하고 불행히도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 제 비록 한낱 여자에 불과하지만 마땅히 뜻을 함께 하는 여자들과 의기와 의협심으로 분발하여 이 모임의 목적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인 여성 개념은 다양한 층위에서 서구적인 여성 개념과 만나면서

70) “阜陶曰予未有知，思曰贊贊襄哉。”(『書經』「虞書·阜陶謨」)

71) 『독립신문』 1898년 10월 7일.

근대적인 여성 개념을 창출하였다. 과부 개가의 정당성을 고대 성왕의 정책이나 '말씀'으로 대신하거, 또는 개가해서 낳은 아들이 불세출의 인물이 된 역사적 사례를 제출하였다.⁷²⁾ 여자도 교육과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에 서는 동양에 '남귀여천男貴女賤'의 사상이 원래는 없었는데, 제대로 학문하는 사람이 없어 그 평등권을 실행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한다. 이와 함께 전통적인 유교 교육의 사례를 열거하였고, 남녀평등이 실천되었던 역사적 사례를 열거하였다.⁷³⁾

여기서 전통적인 여성 개념은 경직되고 고착화된 개념이라기보다는 복잡하고 유동적이며 부분적인 변형을 통해 새로운 여성상의 생성에 개입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근대적 여성 개념이 전통적 여성 개념을 배제하기보다 한국의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변용되면서 생성되는 것이다.

5. 맺음말

이 글은 근대 공간에서 생성된 '근대 여성' 개념의 한국적 성격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되었다. 먼저 '서구'와 '전통'을 연결했던 개화 지식인들의 여성 인식에 주목하였다. 근대 신문을 통해 형성된 개화 지식인들의 담론은 '서구 여성'과 '우리 여성'을 비교하고, '서구 여성'을 기준으로 한 '우리 여성'의 방향을 설정하는 방식이었다. 그것은 '서구 문명'과 '동양 비문명'의 구도에서 주로 전개되었는데, 여기서 여성의 삶을 '문명'과 '비문명(미개)'으로 구분하는 것의 의미를 논하였다. 또 서양에 대한 지식을 축적함으로써 서양에 대한 얕에

72) 『황성신문』 1899년 5월 12일.

73) 「논설: 女子亦宜教育事爲」, 『황성신문』 1900년 4월 9일. 周武王의 아내 읍강묘姜, 晉文公의 아내 齊姜, 진문공을 미리 알아보고 남편의 미래를 도모한 희부기[僖負羸]의 처, 그리고 신라의 선덕여왕과 진덕여왕 등을 열거하였다.

이르고 그것으로 자신을 변화시키는 지식 실천이었기보다 미개한 조선의 얼 굴만을 드러내는 데 급급한 개화 지식인의 한계를 볼 수 있었다.

다음은 ‘전통 여성’을 어떻게 인식하며 ‘전통 여성’을 비판하는 논리는 무엇 인가를 보고자 하였다. 서구 근대의 자유과 독립의 개념은 ‘전통 여성’을 ‘집안 에 갇힌 죄인이자 노예’로 전락시켰고, 전통적인 제도와 관습은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심각하게 문제시되었다. 이와 함께 ‘게으르고 무식하고 폭력적인 조 선 남성’과 ‘불쌍하고 상처나고 가여운 조선 여성’이라는 후진적 이미지가 창출 되었다. 이러한 방식의 담론은 제3세계 여성에 개입하여 중국에는 그 남성을 정복한다는 문화제국주의의 기획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음양론과 내외론을 통해 근대적 여권 개념이 재구성되고 재배치 된 사례를 찾아보았다. 특히 근대초기 공간에서 전통 유교의 내외법은 남녀불 평등의 원인으로 인식되었다. 그것은 여자가 바깥공기를 쐬지 못해 여성 신체 발달에 장애를 불러온다⁷⁴⁾는 주장에서부터 공적 영역으로의 진입이 차단되어 지식과 학식이 막히게 되고 궁극적으로 차별적 상황에 이른다는 논의 등 다양 한 지점에서 비판되었다. 하지만 유교의 내외론은 여성 영역의 독자성이 확보 하면서 그 분야의 전문성과 우월성을 갖추게 된다는 측면의 주장도 있다. 그렇 다면 개화기라는 근대 공간에서 여권女權 개념은 내외론을 어떻게 만나고, 내외 론은 여권 개념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나아가 내외론의 여권적 재구성이 가능 한가를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밥하고 옷 짓는 것만이 여자의 일이 아니외다.”라는 찬양회의 선언은 내외론의 여권적 재구성의 의미를 함축하는 것으로 보았다.

- | | |
|---------------------------|-------------------------------|
| • 2014. 05. 10: 논문투고 | • 2014. 06. 02 ~ 06. 10: 심사 |
| • 2014. 06. 13: 수정완료 후 제출 | • 2014. 06. 16: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 |

74) 유길준, 『서유견문』, 424쪽.

참고문헌

『독립신문』

『맹자』

『서경』

『주역』

『춘추좌전』

『한성순보』

『한성주보』

『황성신문』

『가뎡잡지』

『家庭雜誌』

『여즈지남』

『西友』 2(1907)

A.H.새비지 랜도어,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 신복룡·장우영 옮김(집문당, 1999)

노상직, 『女士須知』(1889)

릴리어스 호튼 언더우드, 『언더우드 부인의 조선견문록』, 김철 옮김(이숲, 2008)

메리 울스틴크래프트, 『여권의 옹호』, 손영미 옮김(한길사, 2008)

박문호, 『여소학』(1882)

박용옥, 『한국 여성 근대화의 역사적 맥락』(지식산업사, 2004)

유 향, 『열녀전』, 이숙인 옮김(글항아리, 2013)

유길준, 『서유견문』, 허경진 옮김(서해문집, 2004)

이숙인, 『동아시아 고대의 여성사상』(도서출판 여이연, 2005)

존 스투어트 밀, 『여성의 예속』, 김예숙 옮김(이화여대출판부, 1986)

주선애, 『장로교여성사』(예장여전도회전국연합회, 1979)

피서벌 로웰, 『내 기억 속의 조선, 조선 사람들』, 조경철 옮김(예담, 2001)

김수경, 『개화기 여성 수신서에 나타난 근대와 전통』, 『한국문화연구』 20(2011)

- 김영희, 「개화기 신문의 여성문제 인식의 경향」(한국언론학회, 2001 봄학술대회, 2001)
- 안외순, 「1870~80년대 유길준의 '근대' 인식 — 유교 및 전통 관념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동양고전연구』 40(2010)
- 윤정란, 「19세기말 조선의 안방을 찾은 미국 여성의 욕망」, 『사림』 34(수선사학회, 2009)
- 이윤상, 「한말 개항기, 개화기, 애국계몽기」, 『역사비평』 74(역사비평사, 2006)
- 임경규, 「조선 개화기의 옥시덴탈리즘에 대한 소고」, 『동서비교문학저널』 20(2009)
- 장규식, 「개항기 개화지식인의 서구체험과 근대인식 — 미국유학생을 중심으로」, 『한국근현대사연구』 28(2004)

The Introduction and Reconstruction of Women's Rights in Early Modern Korea

Lee, Sook-in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

This paper researched the change of concept of women in terms of the transformation and reconstruction of “traditional women” in early modern Korea. It tended to be explained that Korean women were modernized only by western knowledges and countries. They argued that modernization of Korean women was possible by replacement of the notion of traditional women by the concept of western women. This explanation tends to miss the self-reconstruction process of traditional women by communication with western knowledges. It is true that the concept of “traditional women” transformed by notion of “western women” was the motor which produced concept of “modern women.” In early modern Korea, the conception of traditional women were criticized by comparison with western women. Factually the image of western women in civilizing discourses was invented by Korean society. It was a means of contrasting the “civilized West” and the “primitive Korea.” But the women’s rights consciousness was reconstructed by Korean intellectual and cultural background. In other words, the truth of gender equality was understood by the

theory of yin and yang(陰陽論), and also women's rights was re-constructed by interdependence and cooperation rather than autonomy and independence.

Key words

: Early Modern Korea, tradition, confucianism Women's Rights